



도하 아시안게임 이모저모

박태환 AG 역대 두번째 최다 메달리스트

중사격선수 왕이푸 '최다'

5회 참가, 총 25개 획득

○2006 도하아시안게임에서 최다 메달리스트 등극이 잡혀지는 '마린보이' 박태환(17·경기고·사진)이 역대 단일 아시안게임 두 번째 최다 메달리스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태환은 수영 경영 자유형 200m, 400m, 1,500m에서 금메달을 따고, 100m에서 은메달, 400m 자유형 계영, 800m 자유형 계영, 400m 혼계영에서 동메달을



목에 거는 등 이번 대회에서만 총 7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그는 또 자유형 200m와 1,500m에서는 아시아 신기록을 작성, 이번 대회 최우수 선수(MVP)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다.

수영 여자 400m 혼계영과 400m 계영, 800m 계영, 자유형 200m에서 4관왕에 오른 광지아잉은 50m와 100m 자유형 은메달을 획득, 총 6개의 메달로 최다 메달 순위에서 박태환의 뒤를 이었다.

한편 역대 아시안게임 최다 메달리스트는 1982년부터 2002년 부산대회까지 20년간 활약하며 중국 사격대표로 출전해 금 14개, 은 8개, 동 3개 등 총 25개의 메달을 딴 왕이푸다.



11일(한국시간) 새벽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2006~2007 세계빙상경기연맹 쇼트트랙 월드컵 1,500m 경기에서 한국의 송경택과 안현수, 김현군이 1, 2, 3위로 달리고 있다. /AP연합뉴스

안현수·송경택 2관왕 질주

KIA 외야수 이용규 골든글러브 수상

쇼트트랙 월드컵 4차대회

2006 토리노 동계올림픽 3관왕 안현수(한국체대)와 송경택(강릉시청)이 2006~2007 세계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4차 대회에서 나란히 2관왕에 올랐다.

안현수는 11일(한국시간) 새벽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계속된 대회 마지막 날자 5,000m 계주 결승전에 김병준(광문고), 송경택, 김현군(이상 강릉시청) 등과 함께 출전해 6분50초095로 경기를 마쳐 중국(6분50초300)을 0.205초 앞질러 금메달을 따냈다.

이로써 안현수는 전날 남자 1,500m 1차 레이스 결승 금메달에 이어 대회 2관왕(금, 은1)에 올라 이듬감을 확실하게 했다.

또 송경택은 이날 치러진 남자 1,500m 2차 레이스 결승에서 2분17초171로 1위를 차지하면서 함께 결승에 오른 안현수(2분17초328)와 김현군(2분17초440)을 2, 3위로 밀어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송경택 역시 이어 열린 남자 계주팀에 포함돼 금메달 사냥에 성공하면서 안현수와 함께 2관왕의 영광을 차지했다.

한편 여자 1,500m 2차 레이스 결승에 나선 토리노 동계올림픽 3관왕 진선유(18·광문고)는 정은주(서현고·2분24초053)를 0.127초 차로 제치고 2분23초926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한국 남녀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금6, 은5, 동4 등 총 15개의 메달을 차지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KIA 외야수 이용규(21·사진)가 데뷔 후 첫 골든글러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용규는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 센터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2006 프로야구 골든글러브 시상식 외야수

부문에 이택근(현대), 박한이(삼성)와 함께 골든글러브를 수상했다.

또 투수 부문에선 '괴물 신인' 류현진(한화)이 '특급 소방수' 오승환(삼성)을 따돌리고 최고 투수가 됐다.

관심을 모았던 지명타자 부문에서는 양준혁이, 포수 부문에서는 진갑용(이상 삼성)이 2년 연속, 통산 3번째 최고의 안방마님으로 인정받았다. 특히 양준혁의 수상은 1루수와 외야수 부문을 포함해 통산 7번째이고 37세 6개월 15일의 나이로 송진우가 갖고 있던 종전 수상자 최고령기록(36세 9개월 25일)도 갈아치웠다.

이밖에 내야수 부문은 1루수 이대호(롯데), 2루수 정근우(SK), 3루수 이범호(한화), 유격수 박진만(삼성)이 각각 차지했다. 이날 수상자 중 이용규와 류현진, 이대호, 이택근, 정근우 등 5명이 첫 수상의 영광을 안았고, 구단별로는 삼성 4명, 한화 2명, 롯데·SK·현대·KIA가 각 1명순이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아내가 준 속옷 덕에 금메달”

○11일 도하아시안게임 레슬링 그레코로만형에서 금메달을 딴 김정섭은 이날의 승리를 아내가 준 속옷 덕택으로 돌렸다.

김정섭은 작년 10월 결혼해 아직 달콤한 신혼생활을 해야 할 시기지만 대표팀 훈련 때문에 임신한 아내 장서운

(25)씨에게 제대로 해 준 것도 없다며 미안해 했다.

이번 대회에 출전하기 전 아내가 속옷을 놓고 기도를 한 뒤 남편에게 주었고 김정섭은 카타르에 온 뒤 아껴 두었고 이날 경기에 입고 나와 금메달을 딴다.

레슬링 김정섭 우승 소감

“출국 전 속옷 놓고 기도”

1998년 방콕대회 동메달, 2002년 부산대회 은메달을 딴 뒤 세번째 도전만에 금메달을 거머쥔 김정섭은 “임신한 아내에게 맛있는 것도 못 사줬다. 이제 돌아가면 지금까지 못해 준 것을 다해 주고 싶다”고 말했다.

축구 준결승 장소 갑자기 변경

○2006 도하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노리는 한국남자축구대표팀의 준결승 장소가 갑자기 바뀌었다.

한국은 12일 밤 10시 열리는 이라크와 준결승을 당초 카타르 도하 시내 알 사드 경기장에서 치를 예정이었다.

그런데 대회 조직위원회는 11일 별다른 설명없이 한국이라크전을 시 외곽 쪽인 알 가라와 스타디움에서 치르기로 변경했다고 공지했다.

당초 대회 준결승 한국이라크, 카타르 이란전은 두 경기 모두 알 사드 경기장에서 치르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아시아축구연맹은 한국이라크 전 다음에 같은 장소에서 홈팀 카타르가 경기를 하면 잔디가 폐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경기장을 옮기라고 했다는 것이다.

北 축구감독 “한국 우승”

○2006 도하아시안게임 여자축구 결승에 오른 북한 김광민 감독이 한국 축구에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 감독은 11일 카타르 도하 카타르스포츠클럽 축구장에서 열린 중국과 준결승에서 3-1로 이긴 뒤 기자회견에서 “지난 7월 호주에서 열린 아시안컵축구 이후 남한은 세대교체를 강행했는데 이전보다 수준이 높아진 걸 느낀다”며 “충분히 능력을 발휘하면 중국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감독은 또 “어제 북한 남자 축구가 8강전에서 남한에 0-3으로 졌는데 훈련을 하느라고 직접 보지는 못했다. 결과는 이미 나왔으니 남측 남자 축구도 꼭 우승하길 바란다. 우리도 여자축구 우승에 전력 다하겠다”고 했다.

故 김형철선수 국립묘지 안장

○2006 도하아시안게임에 출전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고(故) 김형철 선수가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대한올림픽위원회(KOC)는 11일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대표로 아시안게임에 출전했다 '낙마 참사'를 당한 김형철 선수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충훈당에 안치하기로 결정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4일 오전 서울 아산병원에서 대한올림픽위원회장으로 영결식을 치르는 고 김형철씨는 국제종합대회에서 사고를 당한 선수로는 처음으로 국립묘역에 들어가게 됐다.

그동안 체육인 출신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된 이는 손기정씨와 민관식 전 대한체육회장,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레슬링 금메달 리스트인 송성일씨 등 3명이다.

에이치아이코리아, 인라인 롤러팀 창단

전국체전 광주대표 활약 기대

에이치아이코리아 남자일반부 '인라인 롤러'팀이 11일 광주시 서구 국민생활관 2층에서 창단식을 가졌다.

에이치아이코리아 남자일반부 인라인 롤러팀은 지난 2005년 세계롤러스피드 선수권대회에서 금1, 동1개를 획득한 이훈희(경기성호고 졸업예정), 2006 세계선수권대회 금2개를 따낸 김경덕(강원경포고 졸업예정) 등 전국체전대회와 세계대회에서 입상한 5명의 선수를 주축으로 창단됐다.

김동현 인라인롤러 전문이사는 “김경덕, 이훈희 선수는 세계대회에서 인정받은 실력파로 내년 광주체전에서 금메달을 기대할 수 있는 선수들이다”며 “광주체육발전을 위해 겨울 동계훈련을 통해 실력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에이치아이코리아(대표이사 박재동)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지난 2003년 설립한 고무발포단열재, 고무발포성형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오는 2007년 제88회 광주전국체전의 성공을 위해 팀 창단을 결정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a service with the headline '히히... 밖으로 나도는 남편이 일 치르고, 수표 2장 받아오네?' and phone number 060-700-3658.

Advertisement for a heater with the headline '30만원대 히터가 무릎 꿇었다! 독일형 베커 벽난로형 히터!' and price 99,000원.